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AIG, 일본 생보 자회사 매각 중지

□ 미국 보험회사 AIG는 진행 중이던 일본 자회사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의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o 정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AIG는 현재 해외 자회사 매각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며, 우량 자회사로 일본사업부인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, 아리코재팬 등도 주요 매각 대상이었음.

* 2009년 7월 27일 KiRi Weekly 해외금융뉴스 'AIG 일본 사업부 매각 급진전' 참조

o 최근까지 푸르덴셜(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 인수 유력회사) 및 메트라이프(아리코재팬 인수 유력회사)와 인수조건 등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o AIG는 최근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이 발전잠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시장 공략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AIG그룹의 기업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돌연 매각협상을 중단함.

□ 매각 철회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수기업들과의 매각금액 차이 등으로 교섭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, 최근 금융시장 회복에 힘입어 미국 본사의 수익이 개선되는 등 경영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.

o AIG가 최근 금융시장 회복을 이유로 들어 매각 가격을 인상하자 유력한 인수협상자인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 측이 크게 반발하는 등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었음.

o 또한 미국 본사의 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상환 조건이 당초보다 완화되는 등 자금 여유가 생기자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마이니치신문, 10/31)